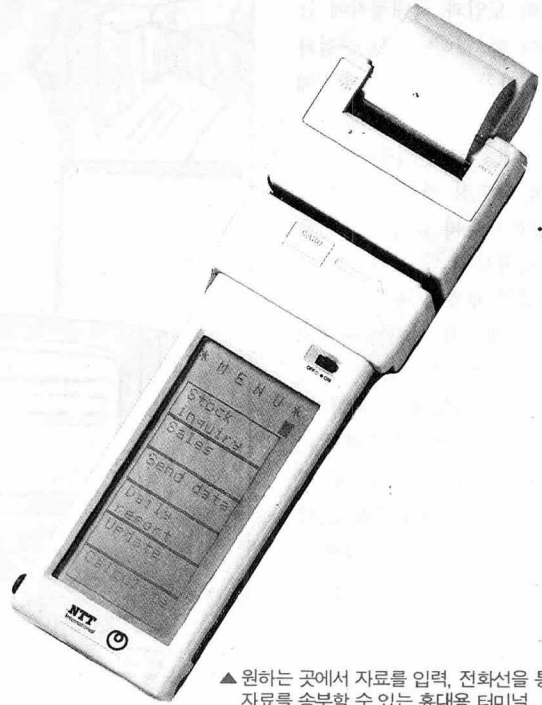


# 첨단 통신기술의 국내 입국 창구

高見 데이터시스템(주)



▲ 원하는 곳에서 자료를 입력, 전화선을 통해 자료를 송부할 수 있는 휴대용 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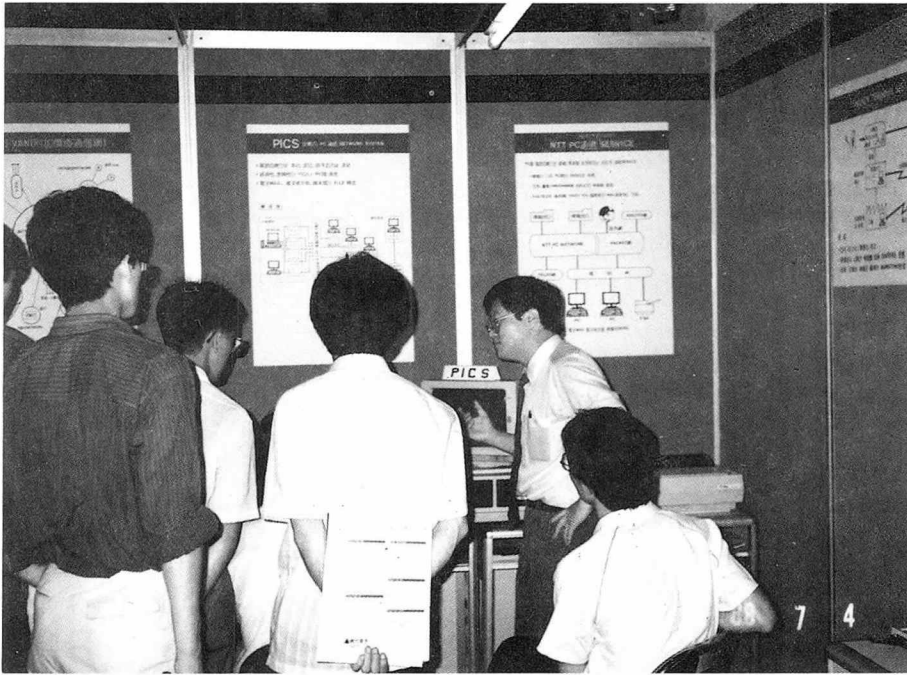


徐廷豪 사장

**일본** 정보통신업계의 거인 NTT와 기술 제휴, 올들어 국내 정보산업계의 여타 기업으로부터 부러움과 시샘을 한 몸에 받고 있는 高見 데이터시스템(주).

「90년대 PC 1천만대 보급도 시급하지만 PC통신망을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NTT는 미국, 영국과 달리 전화

선을 가지고 PC통신을 실현 시켰으며, 이를 통해 비용의 획기적 절감을 가져왔다. 이 기술을 국내에 보급 시키는 것이 高見의 임무다.」 첨단통신기술의 국내보급을 강조하는 劉載奉 전무는 장기적으로 고견의 사업목표는 첫째, NTT의 해외 영업창구인 NTTI와 기술 제휴, 첨단기술을 국내에 보급하



◀ KOEX에서 있었던 소프트웨어 전시회의 고견데이터시스템코너 모습.

는 것, 둘째 그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 셋째 기술을 축적, 해외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NTT 기술도입을 위해 고견은 우선 사내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일 일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연수와 OJT,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 NTT

에 현재 5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고견데이터시스템의 모체는 71년 설립돼 산업기계·계측기기·플랜트 등을 수입, 국내에 보급하는 고견산업(주)인데, 高見이라는 상호는 일본에서 따온 이름이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높이 본다」로 풀이된다. 또한 이 이름은 현재 회사를 이끌고 있는 徐

廷豪사장(52세)의 부친이 재일교포로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사업을 했다는 것과 결코 무관하게 보이지 않는다.

고견산업은 지난 86년 국내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던 NTT인터내셔널사와 뜻을 같이 하고, 86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개월간 3명의 자문단을 맞아 여러 국내상황을 검토, 새로운 컴퓨터 전문회사를 설립키로 합의, 작년 6월 고견데이터시스템(주)를 설립했다.

고견은 창립 이후 지난 1년간을 사업발판을 다지기 위한 연구·조사의 기간으로 정하고, 국내시장분석을 통해 제품내용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를 토대로 지난달 초 KOEX 전시장에서 열렸던 제2회 한국소프트웨어전시회에 NTT의 제품을 출품,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여기서 선을 보인 제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화회선(PSTN)을 이용, 퍼스컴간 데이터통신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신용 소프트웨어인 PI-



◀ PSTN을 통한 PC통신망 형성이 PC 1천만대 보급보다 선행돼야 한다는 劉載奉전무.

CS (PC International Communication System)이다. 이는 고건이 자체 개발 첫선을 보인 소프트웨어로 전화회선에 4,800bps의 고속 모뎀 JUST-PC 어댑터를 채용해 전자메일·전자게시판·단말기간의 화일전송을 고속으로 처리, 본사·지사·해외지점간을 네트워크 시켜준다. 또한 IBM사의 PS/2를 채용, 전세계 어디서나 호스트 설치가 가능하며, 단말기 PC도 IBM사의 PC-AT 외에 NEC의 PC-9800 등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업의 PC 통신시스템으로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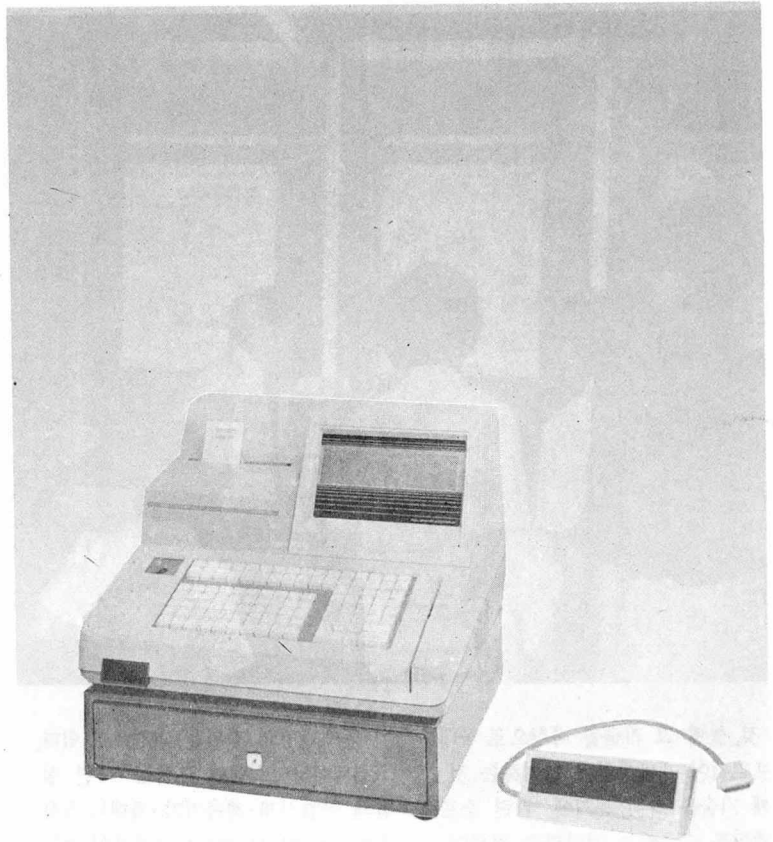
지난 전시회에서는 이 시스템의 데모에 유난히 많은 학생과 참관객이 몰려 PC통신에 대한 일반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

둘째, 지적 빌딩 관리시스템(Intelligent Building System)이다. 이 제품은 빌딩관리서비스·보안서비스·에너지절약 서비스 등의 빌딩 자동화기능과 빌딩 내에 구축된 LAN을 이용한 각종 정보지원서비스·정보관리서비스·정보처리서비스 등의 사무자동화 기능, 음성·데이터·메시지의 디지털교환을 이용한 종합정보통신 기능, 끝으로 위의 세가지 기능을 지원하는 건축 및 설계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PC용 애니메이션(Animation) 소프트웨어인 GENKI이다. 이는 종래 대형 컴퓨터에서 운영되던 대형 소프트웨어 기능을 PC에 맞도록 개량한 소프트웨어로 조작방법이 간단해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초보자도 손쉽게 운영할 수 있다.

사용자는 터키를 활용함으로써 화면에 필요한 그림을 그려 동작시키며, 이를 저장·수정·보완함은 물론, 작성된 그림을 데모용 필름이나 사내교육용 책자로 재편집할 수 있다.

네째, 16비트 휴대용 컴퓨터 터미널이다. 이는 필요한 곳에서 자료를 수집, 전화선을 통해 자료를 송부할 수 있는 소형터미널이다.



▲ 주유소 관리용 POS 터미널 T-16

다섯째, 주유소관리용 판매시점관리 시스템(POS)이다. 이는 고건이 일본 다쓰노사와 공동개발해 공급에 나선 POS용 소프트웨어로, 주유소의 주유기·세차장치·유류탱크·관리시스템 등 각종 주유소 장치를 POS와 연결, 유류 및 주유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한때 조그만 기업이 어떻게 NTT와 제휴를 맺게 되었느냐, 상호가 이상하다는 등으로 세론에 시달렸다. 그러나 NTT는 중소기업이라도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업의 규모는 따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劉전무는 고건은 이에 대해 해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사실 자체가 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劉전무는 「고건의 임직원은 기

술입국을 위한 창구역할을 한다는 데서, 또한 기업을 통한 사회봉사를 한다는 데서 긍지를 찾고 있다」며,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보였다.

PC통신을 위한 첨단기술 보급을 위해 고건은 지난 3월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직원을 NTT에 소개, 일본 현지를 돌며 NTT의 현황을 파악할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직원은 시스템컨설턴트 2명, 시스템엔지니어 8명, 프로그래머 11명, 관리 8명 등 모두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만간 인원을 상당수 증원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6억원. 주소는 용산구 원효로 4가 127-2이다. ♣